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배우자와 자녀 비교

윤 현 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 삼 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수발자의 수발부담에 관한 연구(Zarit et al,1980; George & Gwyther, 1986; Lazarus와 Folkman,1984; Schulz et al., 1988; Fitting et al., 1986; Biegel et al, 1991; Schulz et al., 1995; Braithwaite, 1996; Hughes et al., 1999; Gaugler et al., 2002; Ingersoll-Dayton et al., 2004; Li, 2005)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수발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또한 수발자와 수발을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수발부담은 변한다고 보고 가족관계의 유형에 따른 수발부담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배우자와 성인자녀 부양자를 비교한 연구들은 배우자는 자녀나 다른 친척보다 더 수발부담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George & Gwyther, 1986; Fitting, Rabins, Lucas, & Eastham, 1986; Seltzer, & Li, 2000).

그 동안 국내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수발부담에 관한 여러 연구(김수영·김진석·윤현숙, 2004; Soo Young Kim·Hyun Sook Yoon·Jin Sun Kim·William E. Haley, 2003; 이해정·서지민·안숙희, 2003; 윤현숙·차홍봉·조양순, 2000; 윤현숙·차홍봉·조세희, 2000; 이가옥·이미진, 2000; 이가옥, 2000; 윤현숙, 2000)가 이루어졌지만, 수발부담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 수발자의 비교 연구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강조를 두었다.

첫째, 가족수발자를 배우자와 자녀로 나누어 수발부담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과 수발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발부담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네 영역(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부담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영역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노인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호노인가구의 표본추출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서 장기요양보호노인가구로 확정된 24,656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쳐 구별 가구수 비례로 층화추출한 후 계통적으로 표집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직접 주로 돌보는 배우자나 자녀로 최종 404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Pearli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시된 스트레스과정모델에 기반하여 (Pearlin, Mullan, Semple, and Skaff, 1990) 장기요양보호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과정모델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객관적인 스트레스사건 (stressors)과 이러한 사건의 영향을 중재하는 중재요인 (mediators),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 (outcomes), 스트레스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적 혹은 배경요인 (contextual or background information)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 스트레스사건: 노인의 신체기능 손상정도와 인지기능 손상정도, 노인을 돌본 수발기간이 포함되었다.

2) 상황적 요인: 노인과 가족수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포함되었다. 배우자수발자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포함되었으며, 자녀수발자는 노인과의 혈연관계여부(아들·딸/며느리·사위)가 포함되었다.

3) 중재요인: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과 수발기간에 따른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이 포함되었다.

4)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 장기요양보호노인을 돌봄으로써 가족수발자가 경험하는 결과요인으로 수발부담이 포함되었다. 수발부담은 재정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측정도구

1) 스트레스사건: 신체기능 손상정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측정하여 파악하였고,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정도는 치매의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1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부수발자가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수발자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로 측정하였다.

3) 수발부담: 수발자의 재정적 부담은 1개 항목으로 노인을 수발하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수발자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수면부족, 소화불량 등을 포함하는 14개 항목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측정하였고, 수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발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가사일, 외출 등에 지장을 가져오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수발자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분석방법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O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6. 연구결과

1)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 차이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 차이를 t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이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배우자 수발자가 수발부담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 수발자보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O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의 차이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의 연령, 수발자의 연령, 수발기간, 가구소득, 노인의 신체기능 손상정도와 인지기능 손상정

도가 나타났다.

2) 배우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 배우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정적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
수발상황				
노인의 신체기능 손상정도	.099	.111	.062	.055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정도	.009	.072	.027	.017
수발기간	.025	.431	-.010	.073
노인의 특성				
성	-.311	-1.568	-.385	-.153
연령	-.060**	-.066	-.036	-.006
배우자수발자의 특성				
연령	.037	.115	.032	.011
자녀와의 동거여부	.516	.364	-.019	.158
고용여부	.190	.348	-.192	.097
건강상태(수준)	.029	1.585*	.431**	.335**
가구소득	-.006***	-.008	-.002	-.003**
사회적 지원				
부수발자 유무	.096	-.644	.093	.008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	.185	-.135	.133	.017
R ²	.263	0.164	.226	.253
F value	3.596	1.973	2.942	3.411

* p<.05, ** p<.01, *** p<.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 수발자가 경험하는 재정적 부담은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노인의 연령($\beta = -.060$, $p < .01$)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beta = -.006$, $p < .001$)이 높을수록 재정적 부담은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수발자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부담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체적, 사회적 부담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수발자의 정서적 부담은 자신의 건강상태(수준)($\beta = .335$, $p < .01$)와 가구소득($\beta = -.003$, $p < .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는 정서적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수발자가 경험하는 재정적 부담은 수발기간이 길수록, 수발자가 여성일수록, 노인과 혈연관계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발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부담은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녀수발자의 사회적 부담은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정도가 심할수록, 혈연관계가 아닐수록, 고용되어

<표 2> 자녀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정적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
수발상황				
노인의 신체기능 손상정도	.021	-.229	.026	.025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정도	.016	.107	.040**	.042***
수발기간	.148*	-.110	-.052	-.067
노인의 특성				
성	.259	-1.003	.230	.185
연령	.003	-.013	.002	-.010
자녀수발자의 특성				
성	-.589*	1.648	-.060	-.038
연령	-.013	.149***	-.012	-.002
혈연관계	-.441*	-1.253	-.335*	-.235
고용여부	-.157	-.463	-.414**	-.008
건강상태(수준)	.118	.963	.550*	.076
가구소득	-.004***	-.011**	-.001	-.001
사회적 지원				
부수발자 유무	-.067	1.070	.046	.017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	.321**	.586	.268***	.388***
R ²	.269	.261	.278	.268
F value	4.412	4.229	4.612	4.401

* p<.05, ** p<.01, *** p<.001

있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발자의 정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의 인지적 기능손상,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인지적 기능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정서적 부담이 높은 것이다.

V.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수발부담을 배우자와 성인자녀 수발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모든 영역의 수발부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자녀의 수발부담의 차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과 수발자의 연령, 수발기간, 가구소득, 노인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손상정도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노인 수발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우자와 자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는 스트레스 사건인 노인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의 손상정도, 그리고 수발기간이 수발부담의 전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녀의 경우는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정도가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수발기간은 재정적 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의 회복, 그리고 수발기간 단축에 관하여 프로그램의 개입을 검토할 때에는 그것이 배우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은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수발자의 특성이 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구소득 요인을 보면, 배우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정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이 높아지나 자녀는 재정적 부담과 신체적 부담에서 높아진다. 이는 배우자는 소득이 낮으면 정서적 부담까지 같이 경험하고 자녀는 정서적 부담 대신 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수발자의 건강수준에서도 배우자는 자신의 건강이 좋으면 오히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는 사회적 부담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 수발자와 자녀 수발자의 차이에 대한 제언이다. 배우자 수발자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혀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 수발자는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 그리고 정서적 부담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으로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실천에서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의 수발부담을 경감하여 주지 못하나 자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 그리고 정서적 부담은 덜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윤현숙 · 차홍봉 · 조양순. 2000. “뇌졸중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2호, pp.137-153.
- 이 외의 국내 참고문헌은 별도제시 위계임.
- Biegel, D. E., Sales, E., & Schulz, R. (1991). *Family caregiving in chronic illness: Alzheimer's disease, cancer, heart disease, mental illness, and stroke*. Newbury Park, CA: Sage.
- Fitting M., Robins P., Lucas M. J., & Eastham J. (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A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The Gerontologist, Vol. 26, No. 3, 248-252*
- Ingersoll-Dayton B. Rasch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Recipient Behaviors and Spousal Caregiving Stress. *The Gerontologist. Vol. 44 No. 3 318-327*
- Schulz, R., Tompkins, C. A., & Rau, M. T.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social impact of stroke on primary support persons. *Psychology and Aging. 3, 131-141*
- Walker, R. J., & Pomeroy, E. C. (1996). Depression or grief?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Health & Social Work, 21, 247-254*.
- Yates, M. E., Tennstedt, S., & Chang, B. (1999). Contributors to and medi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informal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4B, 12-22*.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Vol. 20 N, 649-655*.
-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Vol. 26 No. 3, 260-266*.
- 이 외의 해외 참고문헌은 별도제시 위계임.